

송 미 경

‘독두꽃’은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학우들의 모임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정실과 사랑으로,
항상 이과대 오백 여학우들 곁에서
함께 하는 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제/6/대/이/과/대/여/학/생/회/공/약/자/료/집

생명의 어머니로 다시태어나 조국의 맨얼굴로 다가서리니

아버지의 글
내 딸 미경이에게

[전망] 1/9/9/4 이과대 여학생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글] 여성과 사회
여성과 통일
여성과 노동
여성과 취업
여성과 교육대개혁

[좌담] 문화비평
‘신인류의 사랑’을
진단한다.

[알아두기]
여성관련단체 / 여성을 주제로 한 비디오 목록

송미경 선거운동본부

자매여 일어나라

깊고 깊은 뚝속에서
우리 사랑 여성들을 본다

죽력과 강간과 비하의 소용돌이
절망의 바닥에서 담벼락에서
본다 그대들 여성들을

조국 어머니 만신창이 몸뚱아리
지리산 기슭 밭고랑에서 깃발처럼 살아나는
그대 여성들의 팔뚝을 본다

아가의 눈물자위 팔뚝을 너머에서
우리 사랑 여성들의 굴레를 본다

그러나 동지, 자매여 일어나라
조리한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을 지나

생명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리니
조국의 맨얼굴로 다시 다가서리니

현모양처의 사슬도 끊고
밥데기의 상장도 집어 던지고
반쯤익은 세월도 무식처럼 볶이고
애방의 길 연대의 길로 나아가리니

이제 아니다 우린 결코 아니다
우리 사랑 자매여
여기는 마지막 식민지가 아니다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

송미경 후보의

정책자료집입니다.



약력

71년 5월 서울 출생
90년 2월 동일여고 졸업
91년 3월 화학과 입학
93년 제5대 이과대
여학생회 집행부
93년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 회장 출마



여학생회장에 출마하는 딸에게

송원호 (송미경후보 아버지)

미경이는 딸이로 태어나서 아바, 엄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나 어디에 가서 남들 앞에 서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잘 하지 못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해 왔는데 아바 엄마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한다고 하니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집에서 보이는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학교에서는 살아가는가 보구나.

어떤 곳에서 대표가 된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책임을 맡은 만큼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만이 올바른 대표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능력의 한계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약속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미경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학생회장을 하는데 대한 엄마의 반대에 대해서는 너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믿는다. 어떤 부모들이든지 학생회 일을 하는 자녀 앞에서 너의 엄마와 같은 걱정을 하기마련이라는 것을 너도 알겠지. 그건 내가 하는 일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로 인해서 너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일 것이다. 아직까지도 어른들에게 있어서 학생회일을 한다면 과격시위와 함께 연상이 되니까. 나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너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미경이는 아바 엄마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걱정을 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단순히 시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구나. 정마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서고, 옳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을때 아무렇게나 뛰어드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네가 요즘 자주 집에서 얘기하는 학원자주화운동같은 것이 정말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정치에 관한 일만 트집잡고 나서는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모두 걱정하는 학교문제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해결해나가는 학생들이 된다면 어른들도 학생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만 갖지는 않겠지.

내가 여학생회장이라는 자리를 맡는다는 것.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의외의 일이었고, 아직도 네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내가 꼭 하겠다고 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그 일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 걱정시키는 일 없이, 그리고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 맡은 일들을 잘 해 낼 수 있는 그런 아바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1993년 11월 3일
아버지가

후보의 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송미경(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장 후보)

처음 이과대 여학생회장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이 아바엄마에게 어떻게 말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도 아바엄마에게 "아니요, 싫어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는 많은 걱정도 안겨 드리고, 상상도 해보신 적이 없던 말과 행동으로 놀라게도 해드렸기에, 저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아바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차라리 말씀드리지 않은 채 한 해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구요. 하지만 아바엄마가 나중에 저에게 거짓이 있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드리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더이상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숨기면서 지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바엄마가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학생회일을 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엄마 말씀처럼 시집가는 데 걸림이 되면 어쩌나 하는 일들이 걱정이 되시겠지요.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면 마음 졸이게 되실테고, 이런 일들을 말아 하면서도 제 앞길을 잘 열어갈 수 있을까 염려도 많이 되실거예요. 아바엄마의 그런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이렇게 걱정하시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옳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길의 위에 서려고 해요. 가장 크게 저의 여학생회장 출마를 반대하시는 엄마, 엄마가 가끔씩 저희 세 딸들 앞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 후회하시는 모습을 눈물과 함께 보이고, 너희들만큼은 너희의 일을 가지고 자신있게 사는 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에게 이길을 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걸 모르실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엄마처럼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저와 동생들이,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과 또 우리 이후의 여성들이 다시는 자신의 삶을 잃고, 역사와 사회의 부속물로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일 수 있고,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와 함께할 많은 여학우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어렵지 않게 선택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도 저와 같은 것을 느끼고 풀어나가고자 하는 많은 여학우들은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을거예요.

아직은 아바엄마와 제가 똑같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에 때로 더 큰 걱정을 안겨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바는 학생들이 정치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아바가 겪어왔던 우리 역사의 어두운 모습들을 저의 후손들에게까지 안겨줄 수는 없기에 저는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일들까지 아바엄마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엄마가 저에게 기대하셨던 학자의 모습,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당당하게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주적인 여성으로,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어머니로서는 자랑스런 미경이가 될게요.

1993년 11월 4일
아바 엄마를 정말로 사랑하는
딸 미경 드림.

이과대 여학생회 내년에는 이렇게!!

하나. 이과대 여학우들의
구체적인 삶을 내용으로 하는
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1) 알뜰시장 마련

사물함이나 책장에 더이상은 안 보면서도 버리기는 아깝고, 누구에게라도 주었으면 하는 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학기가 바뀔 때마다 사기에는 원지 가까운 책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과대 학우들 모두가 필요로 하고, 서로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 교환하고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구하지 어려운 전공서적들이나 한번 보면 안 보게 되는 사회과학서적, 그 외에도 여학우들의 액세서리,

record판, C.D, 등 여러가지 물건들을 이과대 여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 모아 준비합니다.

(2) 여학우를 위한 복제시설에 힘쓰겠습니다.

1층 전산과 사무실 근처에 이과대 여학우들의 심터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여학생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여학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미 휴게실에 준비되어 있는 악품이나, 하얀철판 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여학우들도 많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휴게실에 대해서 바라는 점으로는 환기시설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 현재의 여학생 휴게실에도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기는하나 1층복도로 나있고, 휴게실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여학우들의 휴식공간으로 부적당한 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더 좋은 공간으로 여학생 휴게실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과대 여학생회에서 학생회동 다른기구와 논의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여학생 휴게실이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휴게실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악품 및 다른 물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학우들이 더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내 여학생 휴게실내에 하나하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과 여성신문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비치하여, 여학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과대 여학생회실에 여성학 관련 서적을 준비해두고, 그 목록을 여학생 휴게실과 이과대 도서관 앞에 비치하여, 대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생활속에서
더욱 풍부하고 적절한
문제제기와 그 해결에
건강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1) 이과대 학우들의 이론장장 마련

이과대 여학우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지 중 현재 신촌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많은 수의 여학우들이 현재의 신촌문화에 대해 너무 퇴폐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수이긴 하지만 일부의 여학우들은 반감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높기에 편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연세인들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신촌의 문화와 더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학내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과대의 학우들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며, 좀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여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떤 어려운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공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묻혀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대한 되돌아봄으로 그리고 이학인 서로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 대중가요의 문제점 몇가지 정도는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여성출연에 대한 논의는 이제 결말지어진 고리타본한 화제로 여기는 우리들이지만 '사랑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라고 쉬지 않고 흥얼흥얼 대기도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자를 보면 무심코 쳐다보게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야한 여자 사라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백양로에서 동문회 플랭카드로 외치기도 합니다.

과연 '어퓨굿맨'에 고추를 그려 넣을 수 있는 '여하론 남자란 다 그런 존재들'인지 몇 년만에 최악의 실업을 속에서 '직장이 없으면 장가도 못가는 남자들도 있는데 취업이 안되면 시집이라도 가면되

는 여자들'이 너무 극성스러운 건지 속시
원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속에서 서로
에게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된 인식들
을 갖고 있다면 고치려는 노력도 함께 되
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은 우리학교 도서관 입구의 소자보
논쟁과 비슷하며 장소는 이과대 도서관
옆에 있는 자보판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
다. 즉,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이과대
여회에서 그 기간동안 있었던 함께 이야
기를 나눌 소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이
학인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얼마 후 모아지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
리하며 결론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
년이 지난후 문제의식을 정리한 자료집도
고민중입니다.

얼마 전의 '송자 총장 이증 국적 문제'부터 '아카라카 입장으로 논쟁' 등까지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연세의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던 중앙 도서관 입구에 붙었던 작은 쪽글들을 기억하며 이학인의 제각기 다른 글씨들이 모여 이학인에게 맞는 대안들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는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2) **이제부터 여학생회 신문**을
만들어 이를 통해 더욱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제5대 이과대 여학생회는 부족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어학우 한마당, 신입생 수련회, 윤금이씨 투쟁 등 일년내내 열심히 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어학우들의 의식조사를 보면 이과대 여학생회가 뭐 하는 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꽤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이과대 여학

생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과대 여학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지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엿. 각 과 여성모임을
지원합니다.

(1) 이과대 여학우의 여성학 실편지
를 열겠습니다.

과내에 여학생 모임이 없거나, 또는 특별히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 이과대의 여학우들이 함께 모여 여성학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93학번 여학우들과 겨울방학 동안 단기적인 세미나를 하고, 이것을 외화시키기 위한 여성학 심포지엄을 1학기 초에 마련하여, 이과대 여학우들이 함께 여성문제에 대해 널리 고민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각 과내 여학생부 모임의 여성학 세미나를 위한 **상시적 학술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전산과, 화학과, 수학과, 전기과 등에서 진행중인 여성학 세미나의 커리는 여태까지 사용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쳐왔습니다. 새로운 서적들이나 자료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되지 않아 제한적인 자료 안에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세미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하고, 더 깊이 고민하려고 하는 여학우

이과대 여학생회 내년에는 이렇게!!

네 옛, 이과대의 주인, 연세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는 여태까지 사용되어 왔던 세미나 자료, 서적들과, 계속해서 새로 출간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각 과 여성모임에 제의함으로써 각 과내의 여성학 세미나와 여성모임이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각 과 여학생 주체가 함께 만나는 과 여학생모임 주제 인식회의를 갖겠습니다.

5대 이과대 여학생회는 각기 다른과 여학생 주체들이 모여서 각각의 상황을 얘기하고, 타과의 상황을 듣고 논의함으로써 서로에게 좀 더 나은 모습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또 그러한 모임을 통해 이과대 여학우들이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과대 여학생회와의 연계도 견고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 여학생 주체 연석회의'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일찍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각 과 여학생 모임의 편차를 너무 우려했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는 93년도 겨울부터 각과의 차기 여학생 주체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연석회의의 기초를 만들고, 서로의 편차를 이해하는 채로, 각과의 상황속에서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연석회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의 학원에서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이과대 학생회와 함께 만드는 이과대 대동제, 연고계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대학문화는 남성위주인 면이 많고, 학생회 사업속에서도 여학우들이 따로 배려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여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대까지의 여학생회를 돌아보면 단대 학생회와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지 못하여, 여학우들의 요구를 올바르게 단대 사업속에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이과대 여학생회도 이과대 전체의 여학생회가 아니라 여학우들만의 여학생회의 모습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는 이과대 학생회 사업속에서 이과대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학우들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과대 대동제, 연고제등을 이과대 학생회와 함께 준비하고, 이과대 대동제 속에서 여성영화제를 마련하여 모든 학우들이 함께 여성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첫. 이 땅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기활을 좀 더 대중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후속작업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속에서 많은 여학우들이 기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너무나도 먼 얘기 같아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두레방에 가서 활동을 하는 형식으로만 마련된 기활의 특성때문에 많은 여학우들이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기활을 다녀온 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후속작업이 없어서 여러 여학우들과 함께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는 좀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활의 형태와 더더욱 깊은 내용성을 고민하여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농활에서 여성농민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 농활을 가면서도 여성농민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농촌경제는 젊은이가 없기에 노인과 여성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9시간의 초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농민반을 꾸리겠습니다.



여성 과 사 회

- 여성과 통일
- 여성과 노동
- 여성과 취업
- 교육대개혁

여성과 통일



1. 들어가며

2. 분단의 고통과 여성

3. 여성의 삶과 통일

4. 하나가 되어야 할 누이들, 이북여성

분단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통일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통일이란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지나온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살
펴볼 때에 20세기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불행한 일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기의 일제 통치하 식
민지 시기에 이어, 후반기에는 민족
이 둘로 갈라지는 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수난인 분단이
여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여성
은 어떤 고통을 분단으로 인해 받고
있을까요?

2. 분단의 고통과 여성

분단의 원인이 외세와 반민족적
세력에 있고 우리 민중이 바라는 바
와는 정반대였기에 분단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우리민족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분단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무엇보다도 분단은 여성들에게
한 핏줄의 혈육과 헤어져야 하는
이산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기혼여성들
은 어린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매춘
의 거리로 나섰고, 또한 사상적 대
립의 와중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거
나 불온한 가족으로 낙인찍힘으로
인해 숨어 살 수 밖에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
들의 민주화 운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상적 고아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은 분단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차라
리 분단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도피
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분단, 그리고 외세에 의한 민
족적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특히 매춘여성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정신대로 끌려갔던 조
선여인들의 치욕이 채 가시기도 전
에 또다른 외세인 미군이 점령하면
서 다시 여성의 성침탈은 자행됩니
다. 1987년 기준으로 이 땅에는 4만
3천여명의 미군이 동두천, 오산, 동
산 등 전국 곳곳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기지 주변엔 예외없이
기지촌이 형성, 매매춘을 하는 여성
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위 양공주들
이지요. 우리나라에선 현재 미군대
상의 매매춘을 필요악으로 보는 경
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필요악일까
요? 미군이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이고, 때문에 남한여성
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낯선 타국땅
에서 고생하는 미군병사들의 성욕을
채워 주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한 여성이 양공주가 되는 과정을
보면, 90%이상이 가난 때문에 직업
으로 매춘을 택하게 됩니다. 한 해
에 19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군주둔
비를 물고 있는 남한정권이 그 돈을
빈부격차해소와 실업문제(특히, 일
하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해결에 쓴다면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생기지 않
을 것입니다. 실제 1985년 전두환정
권이 동두천지역에 부여한 50억의
대부분이 동두천기지촌 주변의 퇴폐

사업에 쓰였다는 것은, 이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우리가 치루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실감케 합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범죄의 많은 부분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범죄들의 집중적인 피해자는 바로 기지촌의 매매춘 여성들입니다. 이것은 지난 윤금씨 사건이나, 뒤이은 김국태 씨 사건등과 관련하여 뒤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합니다.

(3) 분단으로 인해 자주적이지 못한 한국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전쟁후에 미국에 의한 원조경제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수출중심적인 경제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기술 발전에 투자하기 보다는 땅부기동을 하게 되니 수출상품의 가치가 기술에 있기 보다는 싼 가격에 있게 되고,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불안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시장 개방압력은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감원, 해고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서열 제1위는 여성노동자들입니다. 해마다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고용조건과 불안은 저임금을 불러 옵니다. 따라서, 자주적이지 못한 경제구조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위협

받고 있습니다. 매매춘 여성들의 대부분이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잘 살아 보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4) 우리의 생활문화적인 측면도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여성들의 삶을 많이 질곡하고 있습니다.

분단이 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는 사라져 가고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개인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기 보다는 자본주의적인 상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성의 성상품화입니다. 요즘의 고등학생들은 포르노잡지를 돌려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어렸을 때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화에 의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보기 보다는 한 때의 실수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상품지향적인 퇴폐, 향락문화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단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의 삶을 알아 보았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당연히 여성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민중이 고통받는 속에서

여성이기에 더욱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면 우리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3. 여성의 삶과 통일

분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통일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통일이란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 통일이 되면 우선 자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북한정부와 공동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대 문제의 피해보상과 진상규명등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1961년에 한일협정을 굴욕적으로 체결하였기에 정신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민족의 한을 풀기 위해 일본정부의 자주적인 입장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생관광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불평등한 한일행정협정을 개정하고 이전의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우리정부의 자주적 입장으로 뗏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주한미군의 주둔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군범죄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2) 통일 자체가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이기에 군비축소와 국방비의 삭감(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0%)으로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나 성폭력상담소, 별거중이거나 이혼여성을 위한 쉼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군들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기에 미군들에게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살아 온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문제, 직장문제도 국방비 삭감으로 가능해 집니다.

(3) 통일은 민족대단결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남북한 서로에 대한 침략을 무기로 삼아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마저 무시하는 분단상황이 극복되었기에 남북한 민중들은 민주주의적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차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됩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남북교류는 북한의 탁아나 여성취업문제 해결에 자극을 받아 남한 내 여성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여성해방의 첫 발딛음이 될 통일은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 갈 수 있는 큰 힘을 불어 넣어 줍니다. 이 땅 여성들의 주인된 삶을 앞당겨 줄 통일을 위해 여성들이 먼저 통일투쟁을 힘있게 벌여 내야 합니다.

4.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 누이들, 이북여성

갈라진 지 반세기이지만, 오천년을 살아 온 한민족이기에 아직 남과 북의 사람들에게는 같은 것이 많습니다. 남과 북의 여성들 또한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이북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북 여대생들도 취업차별을 받나요?

북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5년 이상 직장에 복무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직종이나 전공과 상관없는 직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사와 의사들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고 관리직 등을 뽑을 때도 남녀 성별보다는 사상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남한의 현실을 보면 취업을 해도 남성과 동일한 일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해도 임금은 남성사원들의 70%수준 정도 됩니다. 그나마,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의 5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나, 청결 잠도 없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진출에 대한 이북여성의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밖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자들 스스로가 자아를 실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

다.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는 것만 갖고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들도 서로 단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조국' 가운데서)

(2) 이북에서는 여성들만 집안일을 한다는데...

이북에서는 여성들이 과중한 가사일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5차대회에서 3대혁명 중 기술혁명에 하나로 '여성을 가정일에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북에서 우리 사회와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은 국가가 가사일을 많이 대신해 주는 점입니다.

우선 탁아소가 잘 되어 있어 육아의 부담이 없습니다. 일일 탁아소, 주간 탁아소, 월간 탁아소 등 부모의 처지에 따라서 탁아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도 딱 맞추어 주고 너무 잘 해 주기 때문에 아이가 탁아소 가기를 무척 좋아한다."고 이북여성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 품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국가가 마을마다 밥공장, 김치공장들을 만들어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국도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는 가사일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가사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가 두 명 이상있는 기혼여성들은 하루 6시간 노동을 하

고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두 시간 만큼의 여성들은 가사일을 하니까 그것을 노동으로 쳐 주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여성들을 가사의 부담에서부터 해방시키자는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진 것은 결코 정부가 시혜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사일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에 참가하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한 몫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고 이 여성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활에서 유용한 대책들이 이북의 실정에 맞게 정부의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북여성들은 다소곳하기를 요구받는 것 같은데, '여자가 어딜...'이라는 이야기를 안 듣고 사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몫을 담당하려고 준비하는 여대생이 되고 나서는 더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때

로는 두터운 벽 뒤로 밀어 내기도 하고, '여자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하는 오기를 일으켜 내기도 합니다.

동병상련이긴 한데, 그래도 남과 북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남에서는 워낙 출신지역 계층 학력 등 사람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만드는 일이 성행하다 보니까 '여자가 뭘 = 여자는 요만큼만'이라는 동식이 성립하고 맙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그런 차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성'은 혁명과 건설의 수레바퀴'라는 생각 하에 여성이 사회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북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함부로 이견이 없고 저건 저렇다고 우리들의 시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역시 많습니다. 통일하고 살아 갈 사람들이 서로 잘 알아 나가면서 이해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겠습니다. 그러자면 만나서 함께 생활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이북의 여대생들과 만나서 웃음꽃을 피울 그날을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성과 노동



1. 성별 노동분업과
여성노동의 사회적 성격
2. 육아의 사회화
3. 탁아운동의 필요성과 현상황
4. 나오며

생산의 기능이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적 역할분담에 의해
가정내에서 소비와 재생산을 담당하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었으며,
그로인해 여성은
생산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남성노동의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성격지워 집니다.

1. 성별 노동분업과 여성노동의 사회적 성격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성별 노동분업은 존재하여 왔습니
다.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여성 또는 남
성에게만 맡겨진 일들이 따로 존재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인간 활동
의 성적 유형화, 즉 성별분업은 역
사속에서 경제적 발전에 따른 노동
성격의 변화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급사회의 진전에 따라
단순 분업의 형태가 아니라 노동의
성격에 질적 차별성을 두면서 차별
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성노동의 사회적 성격
을 재정립하고 여성노동자들이 남성
과 동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에 대해
여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사회는 무계급 원시
공동체 사회로서 단순한 협업관계와
분업관계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의 관계는 아무런 적대
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아 자연 경제에 의존하여 그
날그날의 식량을 채취하여 살아가던
상태였기 때문에 남성은 주로 간헐
적인 수렵, 어로를 담당하고, 여성
은 거주지 주변에서 채집노동을 담
당하는 성별분업이 존재하였던 것입
니다. 채집노동이 자연스럽게 여성
의 노동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조건은 그녀의 생물학적인 존재조
건, 즉 여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임신, 출산, 수유의 모성기능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자간의 자연스러운 역할
분업에서 남녀의 일은 대용한 중요
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 지배, 종속
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어떤 차
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생산력이 미약했던 원시공산제
사회에서는 인간의 재생산이 곧 사
회적 재부의 증대를 의미했기 때문
에 인간의 재생산, 즉 출산의 기능
을 갖추고 있었던 여성들은 사회적
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습
니다.

하지만 농경의 출산과 목축의 발
생이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
와 잉여생산물을 창출시켰고 그로인
해 사유재산제도가 발생하게 되자
남성이 생계를 위한 노동을 담당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여성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전적으로 배제됨과 동시에 생산수단
을 독점한 남성에게 의해 성(性)또한
독점되는 이중의 질곡을 겪게 되었
던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사회 내에서의 성
별분업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
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은 임금과
의 교환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노동
이란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로인해 여성의 노동
영역으로 남아 있는 가사노동은 임
금과 교환되지 않으므로 노동의 개
념으로조차 정의되고 있지 못한 실
정입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일'과
'가정'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구
조화함으로써 계급적 지배와 가부장
적 지배를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은폐
시켜 가부장제는 여성의 노동을 지

배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력있는 남성에게 '무능력한' 여성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독촉 조장합니다.

생산의 기능이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성적역할분담에 의해 가정내에서 소비와 재생산을 담당하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여성은 생산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남성노동의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성격지워집니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은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소비와 재생산으로서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이라는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저임금 노동자로 유입시킴으로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노동력 재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게다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자본가에게 이중적인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체제는 여성노동력의 이중적 착취를 통해 존속, 강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성별분업이란 남자가 각자의 성 역할에 따라 특정의 생산형태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성별분업은 남자가 사회적으로 행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의 차별성을 들이면서 "남성상위, 여성하위"의 계급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성별노동분업이란 하나의 차별적 이데올로기로서 계급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면서 재생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육아의 사회화에 대하여

이땅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여성을 질곡케 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 일까요?

많은 어머니들은 무엇보다도 '육아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히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직접적인 생산현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는 빈민층 여성들에게 있어 자녀들에 대한 심적부담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빈민지역의 기혼여성들은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생계전선에 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포기하고 더 큰 가난 굴레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빈민층 기혼여성들의 자유롭게 취업하여 노동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육아의 부담의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육아의 사회화는 단순히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빈민층 여성이 생계를 위해 취업하고 그 댓가로 자녀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그 자녀로 하여금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탈선하거나 건전한 인간형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민아동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며,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우리사회의 모순이 집약적 형태로 나타나는 빈민층의 문제와 빈민 여성의 취업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통합된 형태로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빈민여성은 물론이고 전체 취업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와 모성보호를 위해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모성보호시설을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전제하에 특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육아의 사회화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성은 인간 자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전제조건이며, 여성이 인류를 위해 담당하고 있는 생산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모성은 결코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일이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입니다.

현 자본주의 체제내에서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막대한 착취를 하면서도 자본가가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전망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물려서는 것이 아니라 '모성보호'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 단위사업장, 지역에 탁아시설은 물론 모성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대하여 싸워나가는 합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으로 싸워 나간다면 가사, 육아의 사회화는 결코 요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빈민지역이나공단주변지역에서 기혼취업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탁아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3. 탁아운동의 필요성과 그 현 상황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아동의 수도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1989년 최소치로 추정해서 15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공사립 유아원에 다니는 아동은 51만명이고, 그 중 3세이하 아동은 2천 7백 70명뿐입니다. 이는 적어도 1백만 명의 아동이 적절하고 안정되게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도 오전시간만 보육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 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는 근로 여성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직장 탁아소는 공단지역 및 근로 여성 밀집지역의 시범탁아소와 사업장 탁아소가 있는데, 사업장 탁아소는 전국에 걸쳐 12개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탁아소에는 대규모 탁아소로 새마을 유아원과 공단 탁아소가 있고, 소규모 가정 탁아소와 빈민 탁아소등이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2천 413개소에 20만 1천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대도시 지역에서의 조사에 의하여 8시간 보육이 44%, 7시간 33.3%, 보육시간이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시간보다도 짧아 취업 여성은 이용을 못하고 오히려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정 탁아의 경우는 비용이 월 10만원이 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노동자 중 소수에 불과한 전문 기술직 노동

자나 중산층 주부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현행법상 3세 미만의 유아를 정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은 새마을 유아원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새마을 유아원조차 대개 4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아반은 1986년에 와서야 서울에서 겨우 10개소에 설치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중 6곳은 9시에 시작하고 9곳은 오후 5시이전에 문을 닫아 역시 주로 중산층 가정주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3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세 유아의 보호에는 포유실과 조유실 많은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탁아소가 광범위하게 설립하려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보사부는 6세 미만의 어린이 82만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수용 인원 10명 규모의 탁아소 가정 탁아소 2만 5천 7백개와 수용 인원 70명 규모의 시설 탁아소 8천 20개 등 모두 3만 3천 720개의 탁아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설정한 시설 탁아소 8천 20개 중 1991년에는 겨우 250개, 1992년에도 1천 2백여개만을 설립해 왔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5천 5백 곳과 가정 탁아소 2만 5천 7백 곳은 1995년까지 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여성노동자는 한해 평균 30%씩 증가하고 있는데!!!! 요컨대, 정부는 방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탁아소가

드물다는 데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탁아소가 발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탁아소는 어머니가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해낼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자녀가 가정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사회의 탁아소는 '아이들 기르는 것이 어머니의 일차적인 의무이고 아이들 돌보는 것은 어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전제를 타파하지 않으면, 아이는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만 잘 자랄 수 있으며 아이를 탁아소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전제를 타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탁아소는 일하는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배려'가 아니라, 단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서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최선의 경우에도 결코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는 최소한의 방편으로서의 탁아소에서 최소한으로 자랍니다. 왜 그러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일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본은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노동에서의 비천하고 시시한 대우와 지위를 참고 견디도록 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교묘한 연쇄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식들을 위해 일하지만, 그 때문에 자식은 버려져 자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성이 착취의 미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여성이 모성을 위해 다른 인간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어머니상, 희생적인 어머니상으로 포장되게 됩니다. 자본이 만들어 내는 노동과 모성의 모순은 어머니와 아이의 모순을 낳게 되고, 아이와 자아실현의 욕구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심각한 모성파괴의 하나입니다.



4. 나오며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한 싸움은 여성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모성보호요구는 여성이 단지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하나로서, 남녀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성과 취업



1. 여대생 취업

정말로 어려운가

2. 왜 여성은 취업이 어려운가

3. 취업준비 과정에도

문제는 있다.

사내 남자직원들의 입장은
'그다지 일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권리만을 내세우고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대졸여성보다는,
비교적 남성의 말을 잘 듣는
고졸여성이
일도 잘 하고
회사 분위기도 부드럽게 한다.'
는 쪽으로 모아졌고...

1. 여대생 취업, 정말로 어려운가?

"모집 채용(제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과 모성보호를 주목적으로하여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한 조항입니다. 이 법에 의해 여성의 용시 기회 제한을 형식적으로는 못하게 됨에 따라 기업체에 여대생 지원자는 예년보다 늘어나 총 지원자의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공채에 용시한 여성의 분포를 보면 <표1>과 같습니다.

이렇듯 용시기회는 많아진 것 같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91년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도 part time, 일용직등 임시 고용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취업형태가 불안정해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졸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압력이 '모집 채용'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즉 군복무가산점제, 남성선호등이 고용평등법을 뛰어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입사후에도 동시에 입사한 남녀가 항상 2-3년의 호봉차이를 나타내고 승진

그 룹	전체지원자 중 여성의 비율	주로 용시한 분야	지원자수: 실제채용인원
L	10%	광고, 디자인	
D	10%		6-7명
S	??	전문비서직	180명 (전문비서직만으로)
H	??	전 산	200명(91년)/100명(92년)
D			

<표1> 취업신문 1992년 10월 29일자

과(정원)	현행	취업확정	취업준비중	복수전공	대학원	기 타
수학과()						
물리학과()	1	2			1	1
화학학과()	1	1	2		2	2
생물학과()						
지질학과()						
천문대기과학과()	1	3	2		3	
전산과학과()	12				2	
생화학과()	1	2				

<표2> 이과대 여학우(90학번) 취업현황

기회의 제한, 결혼 후문제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표2〉는 93년도 11월 8일 현재 우리학교 이과대 4학년 여학생들의 진로 결정 정도입니다.

2. 왜 여성은 취업이 어려운가

(1) 여성을 보는 기업체의 입장

- "고학력여성, 이래서 싫다"

"솔직히 말해 고학력여성들은 기본적인 업무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성들의 잦은 이직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이들은 남성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믿거나(그야말로 믿음의 차원이다), 제한적인 열망, 낮은 직업현신성, 회피적 태도, 리더십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사정으로 채용인원을 줄이는 기업들을 취업난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항변하면서 '여성 스스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까지 합니다.

이들 대기업의 여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녀차별이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들이 주어진 상황을 찾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여성들이 입사를 원하고 비교적 만족하는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전문분야인 편집부에서는 여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지원자는 대개 직무능력이 떨어지고, 설사 합격했다 하더라도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샘 작업을 할 수 없는 여성, 핑계거리가 많은 여성, 대인관계에 적극적이지 못한 여성은 사절"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 회사의 담당자는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은 결코 사회적으로 혹은 여성들에게 지탄을 받을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누누히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기업체의 경우를 봅시다. L증권사에서는 한 때 대졸여성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졸여성들이 '커피, 카피는 할 수 없다.'는 고자세를 유지했고, 고졸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대졸여성들에게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 남자직원들의 입장은 '그다지 일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권리만을 내세우고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대졸여성보다는, 비교적 남성의 말을 잘 듣는 고졸여성이 일도 잘하고 회사 분위기도 부드럽게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고, 결과적으로 대졸여성을 공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여성에 대해 공식적인 퇴직의 압력은 없어졌지만, 사내결혼을 하게되면 당연히 여성사원이 그만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는 결코 퇴사

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이들은 사내결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직업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모두 다 잘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논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정리를 해보면

- (1) 여성들의 노동공급은 비연속적(졸업후 2-3년 근무후 결혼, 그리고 퇴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때문입니다.
- (2)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려면 연결망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남성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 (3) 취업이 안되는 학과에 여성들이 대거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 (4) 사회적 관습으로 여성의 노동가치가 대체노동력 정도로 생각되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고학력 여성을 기피하는 이유들 중에는 일견 새겨들을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성의 직업보장이나 노동조건등 작업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제반요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지 먼저 짚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취업준비 과정도 문제 늘 있다.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인 것은 정보를 얻는 일일 것입니다. 여대생들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학교의 직업보도실이나 학과사무실로 들어오는 광고, 신문광고 그리고 취업정보 전문기관등을 중심으로 얻습니다. 매년 한정된 수이기는 하나 몇명을 뽑는다고 공시하는 공무원이나 언론계 등에 대한 정보는 선배들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상당히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취업정보원은 학교의 직업보도실입니다. 소수의 인원을 수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개 교수나 학과사무실을 통해 추천서가 전달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여성이 비서업무, 팩스를 보내거나 타자를 치는 일 정도만 수행하면 되는 작은 오션상 등이 대부분입니다. 신문광고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곤 하지만, 학교에 전달되는 광고 또한 학교측에서 일일이 선별하거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만 보고 기업체를 찾아가다가 엉뚱한 봉변을 당할 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대학의 직업보도실 관계자는 '여성을 뽑는 회사에 학생을 보낼 때는 여학생 혼자만 보내지 않고 꼭 남학생과 동행하게 한다'면서 사기취업이나 성폭행의 문제도 염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나 상식, 컴퓨터 등을 공부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취업할 것인가에 따라 시험준비가 달라집니다. 대기업 공채, 언론사, 방송국, 공무원 등의 분야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교수업

외에 따로 공동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좀더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일 경우 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문제점은 역시 있습니다. 우선, 여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92년 1월-9월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욕구는 9개월안에 배이상의 증가를 보일 정도로 강해졌고 그 준비도 영어, 컴퓨터 등을 준비하는 등의 모습은 있으나 자신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대졸이라는 자존심만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취업이 되었을 때 직장에서 기대했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막연히 취업하겠다는 의욕만 가지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 후 여러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후 과의를 시작하는 여성의 경우 그 수입드의 이유로 자기만족적으로 불합리한 현실과 쉽게 타협을 하는 편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은 기업이 기업이윤을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여성들 역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후배간의 정보제공 시스템같은 구체적 제도장치와 더불어 '진로지도'의 부재입니다. <표3>, <표4>, <표5>에서도 나타나듯이 우

리학교 여학생의 경우 취업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들의 인식전환, 여성단체의 조직적 대응,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국가기구의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향된 사회전반의 제도 및 인식을 남녀평등이라는 인간중심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기능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회균등과 고용조건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며, 사회보장제도를 합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다른 문제에서는 대개 이해 당사자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 고학력 여성의 집단적 목소리는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당한 한 인간으로 노동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과정이나 취업후에도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화여대나 외국대학에 비하여 여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이 거의 없음 여학생 지원제도와 교육 비교

	Brown대	이화여대	연세대
교과과정	"Pembroke Center" - 학부과정에 70과목을 포함하는 여성학 전공 개설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원 제도와 연구장학생 제도 개설	- 학부과정에 교양과목 개설 - 대학원과정에 전공개설	- 학부과정에 교양과목 개설 - 학부과정에 전공개설
연구소	"Pembroke Center" - 교환교수들과 여러 연구과제 수행 -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학술지 발간 - Brown과 Rhode Island의 여성 논문, 사진, 유물 등을 보관, 연구에 필요한 자료집을 위해 이에 대한 안내서 발간	"여성 연구소" - 여성학 교과과정 개발, 확산 - 국제 제창 - 여성학 관련 영어 책 출판 - 여성 지역사회의 지원	Brown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여성학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연세대는 학부생 교양과목 밖에 없음 Brown대와 이화여대는 여성학 전공연구소가 있으나 연세대는 없음
여학생 상담기관	"Sarah Doyle Center for Women" - 여성관련 주제 포럼에 중요일 개최 - 처원그룹과 스터디 그룹 형성 - 전시회 및 기타 행사 개최 - 도서관 및 전시관 운영	"여학생처" - 여학생의 특성상 모든 행정기관이 여학생 전달	연세대에 여학생처가 있으나 그 기능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단 1명의 교수와 직원 1명만이 지원하고 있음
취업지도	- 취업상담 입학시 시작 - 뉴스레터 매달 제공 (4학년에게는 2주에 한번 제공) - 동문의 포럼 개최 - 워크숍 개최 - 세미나 개최 - 기업의 캠퍼스 취업활동 활성화	- 4학년과 졸업생 취업 상담 - 4학년과 졸업생 취업 인터뷰 실시 - 취업캠프 및 신문 비치 - 세미나 실시 - 기업 설명회 실시 - 추천서 작성	- 진학년 희망과 대상 취업 상담 - 취업캠프 및 신문 비치 - 특강 실시 - 기업설명회 실시 - 추천서 작성
여교수 비율 대 여학생 비율	44.2%	55.7%	40.9%

* 여교수 비율 + 여학생 비율
 자료: Brown University "Pembroke Center for Teaching & Research on Women",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화여대 여성 연구소장과의 인터뷰, 이화여대 취업지도선, 연세대 장학부지파, 여학생처

아울러, 여학생들은 연세대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인격형성이나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믿고 있음

대학교육의 인격형성과 취업에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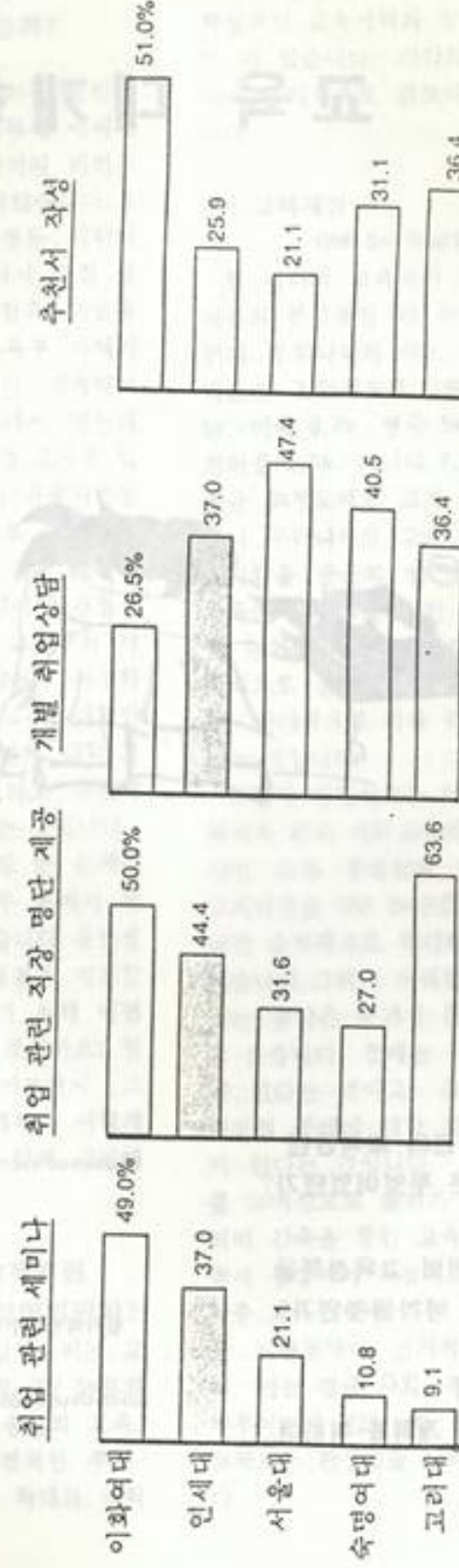


자료: 학부생 설문조사, 현대리서치연구소 취업력 비교조사

또한, 재학시 학교에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자 졸업생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하여 낮음

취업상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대학 졸업 당시 취업상담소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 표본지=107명
자료: 현대리서치연구소 취업력 비교조사

교육 대 개혁



1. 김영삼 정권의 교육관련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던가?

oooooooooooooooooooo

교육부 정책을 보면

이공계열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95년 내지 96에는

입학희망자수와 입학가능자수가 1:1이

되게 한다고 하는데...

oooooooooooooooooooo

2. 김영삼정권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3. 대학교육의 진보와 개혁을 위하여

'한국대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과거 군사독재 속에서 이루어 졌던 사회의 갖가지 비리가 들추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입시부정등 대학에 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서 그칠 줄 모르는 것을 보면서 참혹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자체가 비리와 부패의 온상임이 계속해서 폭로되었습니다. 광운대에서 경원대로 이어지는 사학의 부정, 교육부 입시관리 책임자의 시험지 유출사건등 교육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종대 부정, 경기대 부정 등 사학의 대 재단 투쟁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장치는 교육부의 재단비호였습니다. 이제 학원이 자주화 되는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대학, 그리고 국가의 문제임이라고 주장해 왔던 바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대학의 가장 큰 문제인 사학재단 문제와 교육부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은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아보면, 그 비판을 통해 교육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김영삼 정권의 교육관련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던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씨는 교육에 관한 선거공약으로 GNP 5%로의 교육예산 확대, 인간 중심의 교육, 과학 기술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 GNP 5%, 이공계 정원의 확대와 대학

정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는 부분을 핵심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1) 교육재정

GNP 5% 확보에 대하여

한 나라의 교육투자 노력의 높고 낮음의 분기점이 GNP 5%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GNP 대비 공교육 비율은 3.7%정도로 1986년의 일본 5%, 미국 6.7%, 영국 5%, 이탈리아 5%, 브라질 4.5%, 캐나다 7.5%, 전 세계 평균 5%정도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 노력의 열악함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21세기를 향한 각국의 경쟁력 강화노력은 교육투자를 더욱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상대적으로 더욱 뒤쳐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김영삼씨는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한국 사회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 부실함의 해결대안으로 교육재정을 GNP 5%수준으로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NP 5%확보라는 공약은 두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확보 방안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확보된 재원의 분배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재정규모를 5%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방위비 감축을 통한 교육비 충당,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로 교육조세를 확충, 교육투자에 대한 과감한 면세 등 지원정책이 선차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결국 사회, 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재정 GNP 5%확보는 환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점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에, 정부의 경제기획원과 교총의 교육재정개선에 대한 논쟁을 실은 기사가 있는데 경제기획원 측에서는 교육재정 확보의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교육재정의 개념을 기만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정부부담을 피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이란 국가예산중의 교육부분의 예산을 말하는데 경제기획원의 말대로 사교육비 즉 기성회비, 육성회비등의 사교육비가 교육재정에 넉넉히 포함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교육재정 5%를 넘는 꼴이 되고 앞으로 등록금을 많이 낼수록 교육재정은 많아지고 교육문제는 해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2) 인간 중심의 교육에 대하여

인간중심교육은 전교조의 참교육모토와 대선에서 민자당이 제시한 공약과는 크게 차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충실화, 전인교육의 구현이라는 인간중심교육은 그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을때 현행의 교육체제와 경제구조적 이유, 즉 학력위주의 학제의 문제와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중심교육의 실행은 사회전반의 개선과 개혁이 선행되어야하며 단지 교육자들의 양식의 변화만으로는 현실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학 정원의

대폭적 확대에 대하여

김영삼 정권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교육정책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교육부 정책을

보면 이공계열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95년 내지 96에는 입학희망자수와 입학가능자수가 1:1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의 문제를 정원의 확대에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의 문제는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않다는 점, 고등교육에 대한 위상을 전혀 잡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열풍을 대학문호의 개방으로 미봉하려는데 있습니다. 정원 확대의 방향은 이공계열과 전문대 중심으로 하며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정원을 확대해간다는 것인데 현재 이공계열의 취업현황도 그리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6공화국 당시 대학정원확대 현황입니다. 대학에 대한 공정한 평가속에서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재단의 로비력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정원의 확대라는 것이 해당대학의 재원확대로 이해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재원을 늘릴 방안으로 대학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의 질적 제고 문제와 대학정원의 확대정책은 상충 될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4)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에 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GNP 5%확보는 필요한 것이고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인데, 문제는 이또한 교육재정의 5%확보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재정이 3.7%,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0.5-0.6%에 불과한데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14조원이나 되는 재원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에산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가만한다면 이엄청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지 궁금합니다.

2. 김영삼정권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대학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과학기술계열학과와 대학을 대폭 증원, 신설할 것이다. 연간 4000명씩 증원하여 공업계 전문대학은 매년 9000명씩 증원하여 공업계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술교육대 등 특수대의 증설, 전문대학의 대폭 증대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평가 인정제를 통해서 대학의 서열화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근거로 하여 특정대학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92년에는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약 20개대학이 상위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상위에 포함된 대학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으로 학원안정화대책을 더욱 강도있게 실현해 갈것이라고 합니다. 91년도의 외대 사건으로 구체화된 학원 안정화 대책은 학생운동을 무력화하려는 기도와 실질적으로 학생운동을 크게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권기에는 단순히 정치적 학생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기본적 토대를 바꾸어내고 생활을 바꾸어 내는 것까지를 의도할 것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대학은 공부하는 곳

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사회적인 취업난과 연결시켜 대학을 취업학원화시켜 개인주의적 삶으로 해체시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운동의 기반자체를 허무는데 중점을 둘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의 문제는 과학기술부분에 대한 정책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술과 연결된 이공계열의 정원을 확대하고 재정의 지원또한 산업기술과 연관된 부분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중소기업의 열악함이 한국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이며 대기업의 특화와 중소기업의 전반적 활성화가 대안이다. 즉, 한국의 경제는 이전까지의 단순한 조립가공체계로는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적인 산업구조로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대학의 이공계열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며 전문대등을 활성화시켜 내야 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학에 대한 정원정책과 재정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대학의 이공계열인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로 대학의 교육이 이론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실제의 산업현장에서는 재교육을 실시해야할 정도로 괴리가 있다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과의 수급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 "대학교육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등입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모든 정책이 재벌과 소수 상위권 대학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본과 대

학을 밀접히 연결시키려는 계획으로 산학연계가 논의 되고 있으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몇몇 대학에 국한되어 여러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구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자본적 요구에 의해서 대학을 재편하려는 것이 김영삼 정권 교육정책의 요지로 판단됩니다.

3. 대학교육의

진보와 개혁을 위하여

교육이 가지는 고유한 역할과 그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의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함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만큼 중요하기에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은 세상을 알아나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이 성장할 수 있으며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밑동이 썩어 있는 교육풍토속에서는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민족을 사랑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살아갈 올바른 지향을 지닌 주체역량은 키워낼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외세화에 분단된 민족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에 이르기까지 왜곡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교육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왜곡의 경

도는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고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보면 교육내용에서도, 교육재정, 교육환경, 교육행정등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 없으며 대학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채 조국의 현실과는 무관한 서양사조의 학문으로일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조국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핵심주체는 누구 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는 사람, 즉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은 더욱 심하게 질곡되는 과정을 거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살리기 운동이 학교발전의 차원에서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교육의 심각성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함으로써 시기적이고 단절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했을때 우리의 고/육/살/리/기/운/동/은 공허한 말뿐만이 아니라 투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사

우리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주한미군범죄

지난 5월, 윤금이 누이 살해사건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를 잃은 김국혜씨가 스무살 미군에게 실신할 정도로 폭행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한국여성에 대한 강간, 폭행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여성들이 계속 당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 의문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주한미군범죄, 왜 계속되는가

미군범죄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우리 민족사에서 미군이 해왔던 역할과 범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반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위협해 온 주한미군범죄

45년 9월,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

분으로 남한에 들어와 3년동안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대로 한민족의 허리를 동강내더니, 이 땅에 발을 딛는 첫날부터 우리 민중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친미, 숭미사대정권인 이승만정권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군이 4.3 제주민중항쟁을 직접 진압하여 8만명을 학살해버린 것이 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군병력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에서입니다. 우리가 배워 온 역사 속에서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때문에 일어났고 한국군과 미군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해야 했으며, 유엔 전체의 협력에 힘입어 가까스로 지금의 휴전선까지를 수복한 결과를 낳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수행한 임무가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을까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를 전에

벌써 미국은 유엔에서 채택할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유엔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루 전에는 한국 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었고 미국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엔은 동맹국을 조직했지만, 유엔군 공군의 98% 이상, 지상군의 88%가 미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유엔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또 한국민중들로부터 미군주둔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죠.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방침은 한국인이자 무조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여라. 설사 그대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린이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는 것이며 또 유엔병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평화의 수호자, 자유의 전사라 자칭하는 미 8군 사령부가 유엔군 병사들에게 내린 전투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윤금이 누이 살해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미군들은 증인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최후로 꺾었다. 그들은 방에 있던 노동 표창장을 그의 이마에 못으로 박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고문했다. 우발재의 머느리는 미국장병들

이 그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 하였다. 미군장병들은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나무에 비껴서면 다음 젖을 베고 국부에다 막대기를 박았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은 다음 산 채로 불을 질렀다."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민중을 무수히 죽였던 학살의 경험은 주한 미군 전체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5.60년대에 참혹한 미군범죄사태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전제의 경험때문이었습니다.

동두천 여인 살해사건, 포천 폐인 트릴 사건, 부평 소년 헬리콥터 격락사건, 왜관 린치 사건, 군산 소녀 총격사건 등

(2) 미군범죄의 잔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미군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잔혹한 원인을 일차적으로는 주한미군들 대부분이 사회화 충이고 저질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 민족과 주한 미군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면, 미군병사의 범죄는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지배층들은 군사경제 활성화, 대외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끊임없이 세계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공산주의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그 전쟁에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제일 전방인 동

두천, 파주, 의정부에 주둔하고 전쟁시 가장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끔 매년 전쟁연습에 동원되며,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이라는 부대 표어를 갖고 있는 미 2사단의 병사들은 이복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복에 가겠다'는 말을 뇌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렇게 교육된 병사들을 동원하여 한국전쟁에서처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전술로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미군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을 써도 된다는 것을 실전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여성들은 주한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

(1) 주한미군범죄의 제1차 피해자는 기지촌 여성

한국남성을 상대로 한 매매춘 관계에서도 매춘여성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되는데, 한국정부도 급진거리는 미군을 상대로 한 매매춘 관계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군들은 더군다나 이민족의 여성들을 더 마음대로 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여성들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밤의 화대도 지불하

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놈, 자신의 항수를 달리기 위해 클럽을 출입하는 여성을 빗을 갈아주고 국제결혼하겠다고 감언이설로 피어 몇 달 생활하다 심증이 나면 본국으로 도망가는 놈, 욕하면 시비걸어서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놈, 윤금이 누이처럼 기지촌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해 버리는 놈 - 주한미군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저지르는 범죄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지촌여성들은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강간, 폭행, 살인의 제1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마약과 AIDS, 음란포르노 유통 등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마약을 맞고 포르노 비디오를 봐야 하는 것이 이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 윤금이씨 사건 개요

아직도 윤금이씨의 죽음을 두고, '그리고 그런 여자'의 죽음쯤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지요? 윤금이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나, 남성에 의한 한 여성의 죽음이 아닌,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 여성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및 고 전체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주기를 맞이한 윤금이씨를 다시 한 번 추모하며, 기지촌 여성의 삶을 생각해 보고 이 땅에서 그칠 줄 모르는 미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오후 3시 30분 경, 미군 클럽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씨(26세)가 알몸으로 숨겨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자궁에 콜라 병이 박혀 있었고, 우산대가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가 박힌 채 온 몸에는 피멍과 타박상을 입었고,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 출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장 증거와 목격자 진술로, 케네스 마클 이병(20세)을 검거했으나(1992. 10. 31), 미군 범죄 수사단(CID)의 신병 인도 요청에 따라 아무 조사 없이 미군 측에 넘겨 주었다. 윤금이 씨의 시신은 10월 30일, 부모님 입회 하에 경찰에 의해 화장되었고, 미군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화장 비용으로 60만원을 주었다고 한다. 한국 검찰은 살해 범인에 대한 구금 인도 요청을 처음부터 포기했었고, 수사와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2) 바로 우리도

주한미군범죄의 대상

기지촌 여성 아닌 평범한 여성들, 바로 우리들도 주한미군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1986년 TS 훈련기간중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이 마을 국민학교에 근무하던 이모 교사는 수업 후 귀가하던 중에 미 25 사단 포병대대 소속 5-6 명에게 납치되어 야산으로 끌려가 무참히 집단轮간, 농락을 당하였습니다. 이교사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그후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미대사관은

사실무근임을 애써 강조했으나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이 교회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평화신문 1988. 7. 24)

김국혜씨 사건도 미군범죄가 기지촌 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 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폭행, 살인, 강간범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범죄'의 주범입니다.

지난 1989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울 용산미군기지 맞은 편 '성조기'(미8군신문) 보급창에서 7년동안 수역원 어치의 음란기구, 음화, 포르노비디오가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란서적, 포르노 비디오 대부분이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향락문화는 앞의 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사회 모든 여성들, 여대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성폭력의 위협, 누구나 당해 본 주행 등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향락문화의 영향인 것입니다. 나라가 자주권을 빼앗기면 여성들이 몸으로 때울 일이 많아진다는데 이 땅의 현실, 우리 여성들의 현실이 이 말과 왜 그리도 비슷한지요.

3. 주한미군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 자국의 이해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있는 동안 그들의 범죄는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특히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는 논리를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복을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족이 하나로 단결한다면, 주한미군은 이 땅에 주둔할 근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주한미군범죄 위협으로부터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주한미군범죄 위협으로부터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 나 됨 의 약 술 ,
 실 천 하 는 사 랑 으 로
 참 삶 의 주 인 되 어
 당 당 하 게 일 어 서 는
 그 대 는 자 주 여 성 !

< 제 6 대 이과대 여학생회 으뜸구호!! >

생 활 의 기

설문조사



이과대의 여학우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일들로 시간을 채우며,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과대의 학우로서 또는 여학우로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이과대 여학우들의 생활과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많은 여학우들이 대답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 ▶ 과 남자 동기들과의 관계는어
떻습니까?
▷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식사나 같이 하는 정도



- ▶ 과 여학생 모임의 필요성은?
▷ 여학우만이 느끼고 있는 문제
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다.

- ▶ 위풍이 문화에 대한 생각은?:
▷ 약간 소비향락적인것 같긴 하
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 너무 술만 마시거나 노는데 치
중해서 진지한 얘길 나눌 수 없
다.
▷ 남학생 위주여서 함께 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다.
▷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어서 참
석하기 곤란하다.



- ▶ 교수나 조교로부터 수업시간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상존화하는
거북스러운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나요?
▷ 없다.(80%) / 있다(20%)



- ▶ 실험 실습 등에서 남학생에 비
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없다(100%)

- ▶ 이과대 여학생회는 왜 필요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학우의 단결을 위해 필요

- ▶ 이과대 여학생회 사업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 이과대 여학우 한마당

- ▶ 이과대 여학생회에 바라고 싶
은 점은?
▷ 좀더 대중적인 사업을 했으면
—



- ▶ 과에서 활동하는 여학우들에
대한 생각은?
▷ 열심히 적극적으로 산다.

▶ 공장시간에는 무엇을?

▷ report를 쓰거나 밥, 썰,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 휴일에는 무엇을?

▷ 집에서 썰, 숙제, 또는 취미활동과 함께 보냅니다.

▶ 윤금이씨 사건에 대해 드는 생각은?

▷ 이 사건에 분노하고, 적절한 사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기타:이 사건 하나로 미국 전체에 대한 분노로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

▶ 여휴에 대해서 바라고 싶은 점은?

▷ 환기시설을 강화했으면--

▶ 여휴에 비치되어 있는 악종과 물종등에 대한 사용율은?

▷ 대부분이 사용 안하거나 모르고 있음.



▶ 신촌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

▷ 너무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다.

▶ 신촌에서 여성상품화를 느껴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 야한 포스터나 사진들이 너무 많다.

▶ 이런 것들을 접했을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혼자 분개한다.

▷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잘못된 점에 대해 같이 얘기한다.

▶ 취업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여성 취업의 문이 너무 좁다.

▶ 취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

▷ 선배
기타 : 친구, 게시판, 썰



여성관련단체 전화번호목록
따르릉? 여보세요!

단체명	전화번호
경실련	741-7961
기독여민회	265-7957
두레방	0351- 64-3696
또 하나의 문화	324-7486
반핵 반공해 평화 연구소	853-1069
성폭력 상담소	522-1042
여성 건강 상담소	716-1662
여성 교회	266-1850
여성 단체 연합	274-2883
여성 문화예술 기획	584-6048
여성 민우회	269-5763_6
여성사회교육원	266-4860
여성의 전화	269-2962_4
이대 사회복지관	393-7728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763-9633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	568-6426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275-8505
한국 여성 연구회	887-8198
환경 운동 연합	735-7000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364-9447
Y M C A	754-7891
Y W C A	774-9702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목록
여성 그리기

여기에 선정된 영화들은
홍행의 성패나 영화전문성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현실을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이에 부합된
내용을 담은 영화를 비교적
진지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영화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여성의
현실을 그려왔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여성을 성의 상품화의
대상으로 삼아 여성비하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현실을 그려내기
일삼아 여성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선정하여 여성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습니다.

1. 성과 사랑에 관하여

◆ 우묵배미의 사랑

- 1990, 한국모가드코리아 작품
장선우감독
최명길, 박중훈 주연

◆ Sex, Lies, and Videotape

- 1989년 미국 사무엘 골드윈 컴퍼니 작품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제임스 스페이더, 앤디 맥도웰 주연

◆ 위험한 경사(Fatal Attraction)

- 1987년 미국 파라마운트 작품
에이드리언 라인 감독
마이클 더글라스, 글렌 클로즈 주연

◆ 아만테스(Amantes)

- 1990년 스페인 페드로코스타 작품
빈센트 아란다 감독
빅토리아 아브릴, 호르헤상즈 출연

◆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때(When Harry Met Sally)

- 1989년 미국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작품
로브라이니 감독
빌리 크리스탈, 맥 라이언 주연

2. 여성의 삶에 관하여 - 억압과 굴종에의 도전

◆ 씨받이

- 1986년 한국 신한영화 작품
임권택 감독
강수연, 이구순 주연

◆ 작은 악마(She Devil)

- 1989년 미국 콜롬비아 작품
수잔 세들만 감독

◆ 메릴 스트립, 로잔느 바 주연

◆ 칼라 퍼플(The Color Purple)

- 1985년 미국 워너브러더스 작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우피 골드버그, 대니 글로버 출연
골든 글로브 최우수 여우 주연상 수상

◆ 로말드와 줄리엣(Romald Et Juliette)

- 1989년 프랑스 UGC 작품
콜린 세로 감독
다니엘 오티에, 제르민 리샤르 주연

3. 성폭력에 대하여

◆ 피고인(The Accused)

- 1988년 미국 파라마운트 작품
조나단 케플란 감독
조디포스터, 켈리 맥길리스 출연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1990년 한국 예필름 작품
김유진 감독
원미경 이영하 주연

◆ 립스틱(Lipstick)

- 1976년 미국 유니버설 작품
라몬토 존슨 감독
마고헤밍웨이, 마리엘헤밍웨이, 앤밴크로프트 주연

◆ 적과의 동침(Sleeping with the enemy)

- 1991년 미국 20세기폭스 작품
조셉 루벤 감독
줄리아 로버츠, 페트릭 버긴 주연

「新 인류의 사랑」을 진단한다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늑두꽃' 사람들은 우리가 즐겨 듣고, 부르는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문화와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깊은 지식과 날카로운 비판보다는 우리의 느낌들과 드는 생각, 그리고 작게나마 우리가 실천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박한 예기들을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실습니다.

사회 :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에 대한 처음 느낌부터 얘기를 하면서 실마리를 풀어가고도록 하죠.

미경 : 처음 들었을 땐 흥겨운 복고풍의 멜로디때문에 낯선 느낌이 전혀 안들었어요. 정겹고, 즐겁고, 흥겹고 그랬지요. 그런데 자주 들어보니 뭐 저런 가사가 있나 싶더라고요. '사귀어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귀어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표현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구. 또 사람에 대한 판단기준이 완전히 외모에만 치중되어있다고 봐요.

봉주 : 0158의 경우 대체로 여성을 상품화 한다고 봐요. 예쁜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볼때 외모로만 바라보는 것 같구요. 왜 가사중에 '제일 못생긴 애가 뒤통을 놓는다'라는 부분..... 이런 노래에 의해 사람들이 세뇌가 되고 또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은영 : 저는 0158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이전의 노래들처럼 가사에 힘을 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대화처럼 쓰여졌다고 봐요. 그래서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 같구요. 그리고 이 가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뒷자리에 앉으면 이런 얘기를 남자들이 많이하는 걸 들어요. 대다수 남자들이 묘한 공감대를 느끼는 것 같구요. 0158특유의 속삭이는 듯한 노래 때문인가?

여하튼, 이런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애정관을 펴트리고 더구나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그런 생각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 : 곡은 참 좋다고 봐요. 가사도 옛날 가요들처럼 추상적인 막연한 단어들을 통해 뭉뚱그려진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로 일상 생활을 얘기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참신함이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 : 좋은 생각이네요.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노래가 또는 0158의 노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봉주 : 분명히 일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하거나 미화시키지는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고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신세대 감각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표현하고 있는 일상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문제는 마치 그러한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려낸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관계의 전부는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런 가사가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은 모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사랑을 자신있게 하겠어요? 외모만 신경쓰지. 나같은 사람은 어떻게 연애하겠어요? (일동 모두 웃음)

지연 : 가요가 보편적인 느낌만을 노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대중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그것을 규정하는 거죠. 이런면을 대중가요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 놓쳐서는 안된다고 봐요.

은영 :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선배는요, 결혼할 상대 고를 때 학벌, 성격, 이런거 다 필요없대요. 성격은 두들겨 패서 고치면 되니까 얼굴만 이쁘면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인류의 사랑이라니.... 사랑이란걸 순수하고 진지한것으로 생각 한다면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노래들이 전반적으로 공감이 된다면 이 사회의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사회 : 그럼, 이제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은영 : 1 학년 후배들과 댕거리를 하다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들이랑 노래부르다 '부정'이니 '노동해방'이니 하는 가사가 나오면 같이 부르지 못하겠대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곧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데도, 만약 남자들이 이런 주제로 댕거리하면 '모두 이런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

하겠지만 다 같이 휩쓸려 있을텐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봉주 :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더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그 얘기 좀 했으면 해요. 어찌됐던 이러한 가사가 우리의 문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우리의 문화에 대해 미약하나마 대안을 이야기해보죠.

미경 : 실태를 생각하면 엄청나고, 대안은 왜소하고---, 휴.

지연 : 그러니까 ‘하나됨의 약속, 실천하는 사랑’해야지. (모두 웃음, 박수)

은영 : 우리 이런걸 이과대 사람들 모두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음-- 소자보 논쟁처럼요.

모두 : 야, 그거 좋겠다. (이리하여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의 공약하나가 탄생되었다)

미경 :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만 한다고해서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지연 : 대안제시가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찾는것만으로도 건강하다고 봐요. 우리의 의견을 내놓는 것 만으로도 많은 도움, 발전이 있을거예요.

사회 :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마친 느낌에 대해 얘기해보았으면 좋겠네요.

미경 : 그저 싫다, 화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로 표현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어요. 대안을 찾는 노력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봉주 : 0158의 뛰어난 음악성, -근데 이게 맞아요? (모두: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뛰어난 재주를 잘 이용했으면 해요. 저 노래를 한 정00의 문제나, ‘남자는 다 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이므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거죠. 재미있었어요.

은영 : 사실 토론을 한다고 해서 남자들의 잘못된 여성관이 축적이 될 줄 알았는데 문화, 대중문화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좋구요, 대안이 나와서 좋아요.

지연 : 0158의 새롭고 참신함은 틀림없다고 봐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구요. 사랑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지만 환경이나 언론에 대해선 나름대로 비판 의식도 있구요. 0158에게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면도 보이기 는 하지만 대중가수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봐요. 환경문제 이야기하면서 공연때 보면 온통 무스, 스프레이 잡아요. 좀 더 실천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한 시각을 나누어가져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회 : 대안이 없다고 답답해하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부분부터 변화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의 글

미경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남영아 (화학 91)

아마 대학입학에 앞서 처음 만난 화학과 동기가 미경이었을 것이다. 선배와의 상견례날이었다. 대충 몇마디 나누어 보고도 미경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음악에 아주 소질이 있는, 또한 새로 시작될 대학 생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미경이에 대해 기억이 많이 남는 건,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모습이다.

대부분의 종교생활을 하는 학우들이 그렇듯이 미경이 또한 많은 갈등을 겪었던 걸로 생각되며 또 그러한 갈등 하나하나를 항상 발전적으로 풀어나가는 미경이의 모습이 어느새 지금처럼 많은 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그 자리에 오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미경이를 보면 “민들레” 노래가사가 생각난다. 그동안 내가 지켜 본 미경이는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밝음을 잃지 않는, 또한 주어진 일은 기필코 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주어진 많은 과제들도 미경인 아주 건강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하나됨의
약속 ,

실천하는
사랑이니까

당당하게
일어서니까

그대들
자주여정 !

자료집을 마치며

많이 늦어져서
이과대 오백 여학우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고민없이 금조하는 자료집이기 보다는,
여학우 여러분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일동

발행 : 제6대 이과대 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화학 3 송미경 전산 3 장지연

전기 2 최은영 전기 2 무주영

화학 2 장소희 수학 2 김예원

그리고 수고한 모든 친구들

에스신 분들 : 서태원, 권일재, 이과대 전산소분들 외 ...